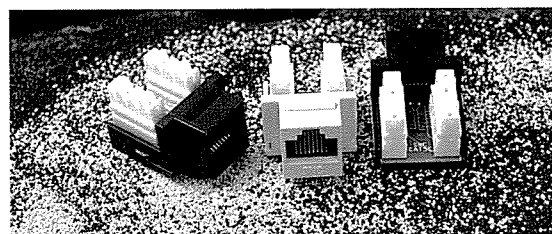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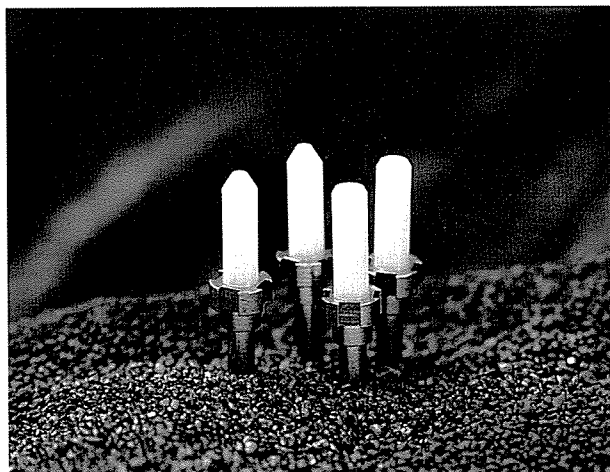


# 신한포토닉스(주)

## SHINHANPHOTONICS



### 신한포토닉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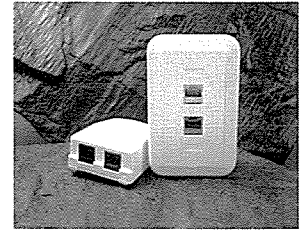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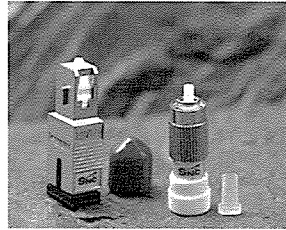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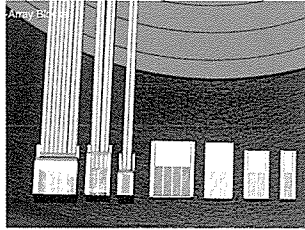
- 대표이사 : 주 민
- 설립연도 : 1996. 1.
- 본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750-6번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 2번도로)
- 주생산품목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전기통신공사, 컴퓨터, 통신기기  
광케이블, 광통신장비,  
소프트웨어개발
- 전화번호 : (062)949-7114
- 팩 스 : (062)949-7115

신한포토닉스(주) (대표이사 주 민 www.shinhannet.com)는 1996년 1월에 설립되어, 2001년 7월에 본사 및 공장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에 신축·이전하고, (주)신안네트워크에서 상호명을 신한포토닉스(주)로 변경하였다.

2002년에는 “Outlet Module·Outlet Module용 PCB”의 의장 등록과 “다수준 격자부호변조방식의복호화방법및장치”의 특허등록, 2003년 1월에는 ISO 9001, TL9000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포토닉스는 광점퍼코드, 광감쇄기, 광커플러, 광폐를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광폐를 생산설비의 경우 SC, APC TYPE은 현재 월 60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아울렛 모듈 CAT.5E, CAT.6 등을 개발하고 현재 아울렛 모듈 CAT.5E는 생산 판매 중에 있다.

또한 현재 다품종 PM 광부품을 개발중에 있다. 일반 단일 모드 광섬유는 광섬유를 따라 광신호가 진행되면서 편광 상태가 여러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현상은 광통신망의 정보 전송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광섬유 대신에 매우 큰 복굴절성을 가지는 편광 유지 광섬유를 이



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M(Polarization Maintaining)광섬유를 이용할 경우 그에 따른 광섬유 부품도 편광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 PM 광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광섬유 부품 소자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PM 광섬유를 이용한 광 부품은 초고속 광통신 망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한포토닉스는 2003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 예로 스웨덴의 The Blue Shift AB사와 계약을 맺어 유럽 최대의 통신회사로 알려진 스웨덴 에릭슨사에 광통신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 외 독일, 미국, 태국, 인도, 헝가리 등에 광통신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여 수출량 증가에 힘쓰고 있으며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비중을 두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어 매출증대에 힘쓰고 있다.

주 민 사장은 "2003년도 매출계획은 90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은 100만불을 목표로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확장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IMT2000 서비스 개시, 디지털방송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Data Traffic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해결방안으로 광통신 시스템 확장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광통신망의 구축을 위해서 각종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광통신 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포토닉스는 미국의 SIEMON사 및 스웨덴의 Ericsson사와 수출계약을 맺어 지속적인 수출을 진행중으로 PATCH CORD, 광감쇄기 등을 현재 OEM 생산 납품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및 유럽의 광전송장비의 규격이 루슨트의 경우 LC, 일본 NIT의 경우 MU TYPE 으로 소형 Ferrule을 규격화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송장비의 경우 소형화 하려다 보니 LC, MU TYPE의 Ferrule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LC, MU Ferrule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일본에는 2곳(아다만트, 토트)뿐이고, 한국의 경우엔 신한포토닉스만 소량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LC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여 2001년 Ferrule 설비 도입시 월 5만개의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현재 일본 및 영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고, 최근 들어 LC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업체마다 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공급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C, MU Ferrule 생산설비 추가후 LC Ferrule 생산계획은 월 20만개이고 매출계획은 내수 20%, 수출 80%로 예상하고, 해외 업체와도 공생관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

〈취재 / E(주) 김경진〉

